

농협 전남본부
공제보험사업
5년 연속 최우수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가 2006 공제보험사업 전국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지역본부로 선정됐다.

또 특별공적 3명, 연도대상 17명, 제일즈와 5명 등이 우수 직원상을 수상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특별공적에서는 운남농협 김혜영 대리, 화산농협 강구민 대리, 흥양농협 박희옥 대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연도대상 금상은 산이농협 박형선, 안양농협 오승자, 여수시지부 백희순, 동순천지점 서재순씨에 돌아갔고 은상은 삼계농협 고광무, 동상은 동북농협 김영희, 장흥농협 안현순, 보성농협 안수자, 천관농협 박영란, 장성농협 나선주, 해남농협 민경철, 화순농협 문정순·이순금, 옥천농협 문삼준, 노화농협 전경화, 죽고동지점 박후길, 북순천지점 권수남씨가 수상했다.

세일즈왕은 장흥 천관농협 회진지점 이정민, 장성 황동농협 김영희, 진도 선진농협 문순복, 고흥 거금도농협 이은미, 해남 북평농협 문인숙씨가 차지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외환위기 이후 10년 광주·전남 경제

저성장·저고용·저물가 3低 뚜렷

생산·수출 호조세... 체감 경기는 개선 안돼
대기업-중소 영업이익·임금 격차 더 벌어져

1997년 외환위기이후 10년동안 광주·전남지역 경제는 저성장과 저고용, 저물가 등 이른바 '3저(低)현상'이 뚜렷해 진 것으로 나타나 저성장 기조와 고용없는 성장의 고착화가 우려된다.

또 FTA확대를 비롯한 세계화와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내수와 수출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업과 가계간 양극화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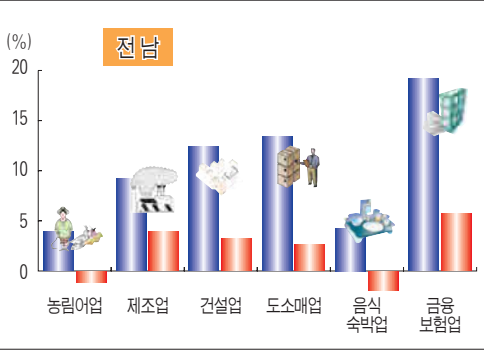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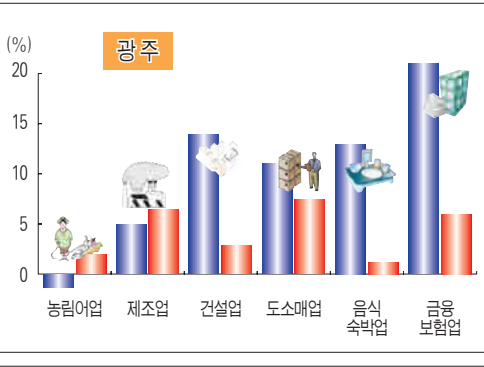
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지역경제는 대체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3저현상과 양극화 등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경제성장률의 경우 1990~96년에는 연평균 광주가 8.7%, 전남이 7.9%이던 것이 2000~2005년에는 각각 5.0%와 3.2%로 절반가까이 하락했다. 전남지역은 특히 투자위축과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10년동안 경제성장률이 4.7%포인트나 하락해 16개 시도중 하락폭이 가장 컸다.

고용사정도 악화돼 실업률은 10년동안 광주가 3.1%에서 4.3%, 전남이 1.3%에서 2.4%로 상승했으며 임금근로자대비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광주가 47.7%에서 50.5%, 전남이 48.2%에서 52.4%로 높아졌다.

그러나 같은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광주가 3.5%, 전남이 3.2% 하락했고 부동산가격도 소폭 오

주요 부문별 성장률 1990~1996 2000~2005



른세에 그치면서 물가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안정됐다. 부문별·산업별·기업별 양극화현상도 심화됐다.

산업별로는 광주와 전남의 연평균 건설투자액과 설비투자액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둔화된 반면 수출은 외환위기이후 연평균 20% 내외로 증가하면서 내수와 수출간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기업측면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1999년 0.6%에서 2005년 5.8%로 벌어졌으며 임금격차도 더 커져 전남의 경우 상용근로자 10~29인 중소기업 직원의 월급이 96년 500인 이상 대기업 직원 급여의 74.5%에서 2006년 61.2%로 13.3%나 벌어졌다.

또 제조업의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99년 138.6%와 34.9%에서 2005년 85.45%와 20.3%로 낮아지는 등 기업들의 재무구조는 개선됐다. 하지만 10년동안 가계대출규모는 광주가 4.3배, 전남이 3.1배 늘면서 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중도 광주가 11.7%에서 29.5%, 전남이 4.8%에서 8.0%로 상승하는 등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악화됐다.

한국은행은 이에따라 지역경제의 저성장 기조 극복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노동력 활용의 효율화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한편 성장촉진형 재배 정책의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정삼선 과장은 "3저 현상과 양극화 문제는 경제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고부가가치 산업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을 키워 고용없는 성장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설을 앞두고 담양한과 직원들이 주문받은 한과 선물 물량을 보내기 위해 분주한 손놀림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 주문이 쇄도할 정도로 명성이 높아져 연간 500여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최현태기자 choi@kwangju.co.kr

대한화재 자산
1조원 돌파
6년 연속 흑자 달성

대한화재는 1월 영업 실적을 가마감한 결과, 자산이 1조2억 5천만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한화재는 "2006 회계연도 3·4분기 누적 순이익이 36억원으로 6년 연속 흑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분사 사육이 매각되면 지급여력비율이 220%대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화재는 3월에는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정필수기자 bungy@

"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 위해 최선"

오병균 신임 자산공사 광주·전남지사장



"고향인 광주·전남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만큼 고객중심의 윤리경영을 펼치는데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신임 오병균(50)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사는 8일 "자산관리공사는 IMF 이후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성공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국가 위기극복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내 채납자 자산의 공개업무 위탁과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 등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장은 "자산관리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객중심의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장은 광주출신으로 동신고와 국민대를 졸업하고 지난 1984년 자산관리공사에 입사한 뒤 기획조정실 부실장, 코레일 부동산신락 구조조정 단장, 전북지사장 등을 거쳤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문-일반건설사 협력도 낮다

전남도 회원사들 공사하청·대금결제 등 상생 외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전남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일반건설업체와의 상호협력마저 원활하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있는 평가다.

8일 대한전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최근 건설교통부가 2006년 전남지역 일반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간 상호협력정도도를 가늠하는 지표인 '상호협력관계평가표'를 발표했는데 평가결과가 전년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협력관계평가표는 지명도가 높은 전국 150개 일반건설업체와 지역전문건설사간 공사하청 관계, 대금결제 등 상호협력관계정도를 점수로 환산한 자료다.

2005년의 경우 지역에서는 6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일반건설사가 17개사에 달했으나 2006년에는 13개사로 4개사가 줄었다.

특히 2005년 80점 이상인 곳이 10개사나 됐지만 2006년에는 6개사로 크게 감소하는 등 일반-전문건설사간 협력정도가 양은 물론 질적인 면에서도 크게 악화됐다.

이같은 열악한 경영여건으로 전남도 회원사들의 수주실적도 타지역에 비해 부진하다.

2005년 기준 회원사들의 평균 수주액은 10억7천518만원으로 전국 평균(14억1천200만원)의 76% 수준에 그쳤다.

/최경호기자 choice@

담양한과 설 선물로 '인기'

외국인 주문도 쇄도

설을 앞두고 담양한과가 날개 돌친 듯이 팔리고 있다.

담양한과(http://www.damyang.co.kr·대표 박순애)는 올해 설매출을 지난해보다 10% 늘린 25억~26억원으로 잡고 평소 보다 70여명여를 더 투입, 제품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박 대표는 "IMF 이후 우리 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많이 바뀌면서 한과매출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세트당 3만원 또는 5만~6만원짜리 중저가 제품은 광주·전남지역 등에서, 10만원 이상의 고가는 서울·경기지역에서 주문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한과가 우리나라 전통과류로 인식이되면서 외국인들의 주문도 쇄도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때는 25만원짜리 제품을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에 선물,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다.

담양한과는 전국 100여개의 매장을 통해 연간 50억~55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국 130여개 업체 가운데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박 대표는 "최정 담양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 우리 고유의 빛깔과 맛을 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061)383-8283.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SELF WINE advertisement featuring wine bottles and promotional text in Korean.

Advertisement for air conditioning and air purification service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 details.